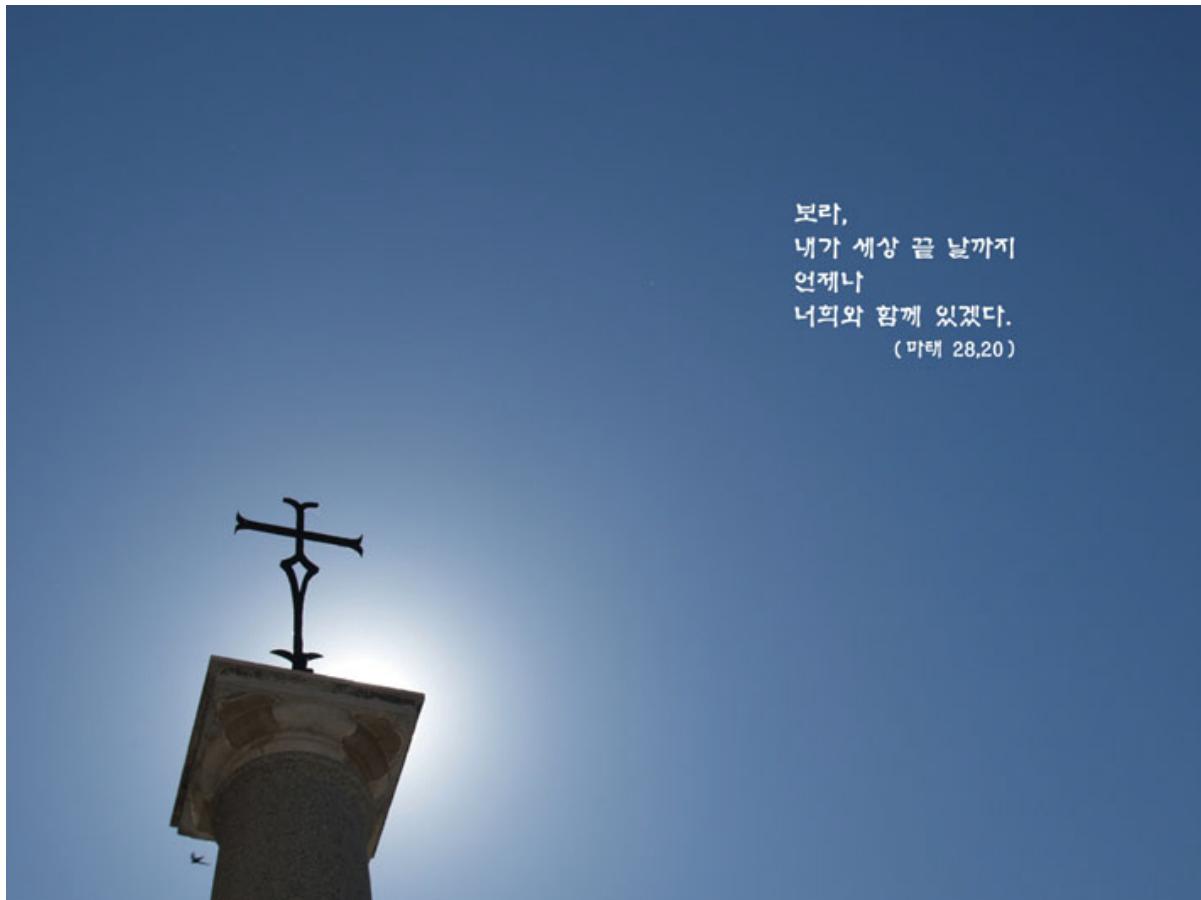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서울주보

2008년 10월 19일(가해)
- 제1651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뉴스: www.catholic.or.kr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입당송 시편 67(66),2-3 참조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ㄴ,3ㄷ-4,5-6

- ◎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도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도다. ◎
-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도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의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도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와 함께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와 노랫가

락과 함께. 나팔과 뿔 나발 소리와 함께,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마태 28,19ㄱ,20ㄴ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마태 28,20 참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이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진 묵상

주님 돌아가신십자가. 그 뒤를 하느님의 빛이 찬란히 내리비추듯 우리들이 지고 가는 크고 작은십자가에도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십자가를 주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스페인 마드리드). / 사진: 횡인선 바르나바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전교

김영춘 베드로 신부 | 평화방송 · 평화신문 주간



【口】 국에서 유학하면서 학업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은 캠퍼스 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저는 교내에 있는 경당의 매일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캠퍼스안에서 저를 알아보는 미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근처, 교내 식당, 교내 셔틀 버스 정거장 등에서, 그들은 저를 보면 “Hi, Father!(안녕하세요, 신부님!)” 하며 친근하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들 중에는 매일미사에 자주 참례하여 이름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매일미사에 참례하는 미국 가톨릭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 학생들은 가톨릭 사제인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곳곳에서 제가 잘 모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길거리를 마주 지나치면서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또 식당이나 도서관 매점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교정의 도처에서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기에, 교정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교정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대부분 ‘신부님’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미국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신부님’하고 저를 부르면, 저의 무조건적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풁니다. 가톨릭 사제임을 표현하는 ‘신부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정에서 학생이면서도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던 캠퍼스 생활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 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톨릭을 알리는 자연스런 전교였습니다.

전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서 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전교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이 있을 때만이 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

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에게서 흘러넘치기에,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권하는 전교는 무엇보다 자기 신앙의 확신이며 표현입니다. 전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거나 안하거나 떠나서, 전교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전교를 통해 믿지 않는 이를 입교하도록 하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전교는 믿지 않는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행위이기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신앙 안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 앞에서 떳떳이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한 까닭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는 신앙인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전교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간장종지

만날 때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헤어지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실낱같은 약속
사람들의 약속

말씀의 이삭

불편한 나들이

김현옥미리암 | 환경활동가, 아동문학가



“토 요일에 놀러 가자.” “어디로?” “어디 가고 싶은 데?” “롯데월드 아니면 서울랜드! 오랜만에 몸 풀러가자. 고모!”

신나는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해 없는 애교까지 부리며 조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사람 구경만 실컷 하다 오는 데가 뭐가 좋아?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놀러 가는 데 제격이지.”

조용한 데는 무서워서 싫다고 우겨대는 조카들에게 “강아지랑 병아리 키우고 싶다면… 강아지랑 병아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키울 수 있지!” 하며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더니 단번에 넘어왔습니다. 강아지랑, 토끼랑, 닭들이 동물왕국을 이루며 사는 곳이라는 말에 솔깃했지만,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고 간다는 말과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간다는 말에 다시 한번 안가겠다고 심통을 부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러 갈 때는 걸어서도 잘 가고 자전거도 잘 타고 다니다지만 어른들과 나들이를 할라치면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타고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 버리면 후손들에게 남겨 줄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했더니 다른 행성을 발견하면 된다고 우기거나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다른 집보다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분리수거나 물 아껴 쓰기 같은 것은 제법 잘 하는데도 불편한 나들이를 질색하거나 소란스럽고 인위적인 놀이동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친

환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서너 시간을 소요하며 귀농한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키만 한 누렁이가 어슬렁거리며 아이들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엄마야!” 여섯 살 루치아가 외마디를 지르며 누렁이를 피해 마루 위로 풀짝 오르자 누렁이보다 더 덩치가 큰 요한과 바오로도 덩달아 숨었습니다.

“어이없다. 요한아, 바오로야. 6학년 맞아? 누렁이보다 더 큰 녀석들이 등치 값도 못하네. 뭐가 무서워? 니들이 호들갑을 떠니 누렁이 황당해 하잖아. 하하.”

집주인 파비아노 형제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을 다 차지한 오리와 닭, 햇볕 아래서 게슴츠레 졸고 있는 토실토실한 고양이, 어슬렁거리는 누렁이 일가족, 우리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란 눈을 하고 있는 토끼들을 보며 아이들은 놀이동산도 놀이기구도, 컴퓨터 게임도 잊은 채 그들 속에 묻혀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른 피조물을 존중하라는 것, 자연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불편한 나들이는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걸어서, 손수 만들어서, 자연 속에서, 다른 種들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 한 자락은 우리들의 왜곡된 삶을 바로 잡아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31

별새 크리킨디 이야기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숲 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별새만은 왔다갔다 부리에 물을 한 방울씩 담아 와서는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동물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일을 해서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크리킨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 이야기는 남아프리카의 원주민

민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 시대, 뜨거워진 지구에서는 커다란 태풍이 일고, 해면이 상승해 육지가 가라앉고 사막화와 물 부족은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새 크리킨디’가 되면 어떨까요? 보다 적게, 보다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큰 물방울이 되어 지구를 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들”



우리는 올해 바오로 사도를 위한 특별 희년을 통해, 바오로 사도를 더욱 잘 알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 발전과는 달리 폭력과 범곤이 넘쳐나고, 곳곳에서 인종적·문화적·종교적인 차별과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기술적 진보와 자원의 남용은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고 인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미래가 있기는 한가?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인류와 우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리스도와 그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오로를 전령과 사도, 복음의 선포자요 스승으로서 선교의 길에 나

서도록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 9,22).

바오로 사도의 경험을 볼 때 선교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만민에게 선교하도록 재촉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성직자와 성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화를 계획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들여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 배를 저어나갑시다. 예수님이께서 우리를 늘 도와 주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워 말고 그물을 던지십시오.

교황청전교기구는 선교에 있어 하느님 백성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양성하는 힘 있는 도구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여러 지체들 간의 인적 물적 친교를 육성합니다. 전교주일을 지내면서 복음 선포의 절실함을 다시 깨닫고, 전교주일에 모든 본당에서 모아지는 현금이 교회의 친교와 상호 관심의 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담화문 전문은 www.cbok.or.kr의 ‘주교회의 소식’ 참조)

교황청전교기구

교황청전교기구에는 가난한 나라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베드로사도회, 선교사들을 돋는 전교회, 어린이를 돋는 어린이 모임인 어린이전교회, 성직자·수도자들의 모임인 전교연맹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물질적·영적 궁핍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적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년 전교주일에 현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기도와 후원으로 세계 선교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문의: 2268-7103 교황청전교기구 한국지부 / 팩스: 2268-7104 / E-mail: pmsk@pmsk.net



소식

오늘(10월19일)은 '전교주일'로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제4회 청소년 축제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는 제4회 청소년 축제 'Live Life, Live Love'를 개최합니다. 생명·사랑과 함께하는 체험부스, 동아리 및 초청공연, 가톨릭청소년문화상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 때, 곳: 10월25일(토) 오후 1시~6시, 서초문화예술공원(양재교육문화회관 옆) / 문의: 727-2089, 3486-1318
- 양재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낮 12시~오후 2시)하며, 단체 35명 이상 신청시 버스를 보내 드림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개최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는 '평화를 일구는 여성·신앙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라는 주제로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를 개최합니다.

- 때, 곳: 10월26일(일)~31일(금), 서울유스호스텔
- 개막미사: 10월27일(월) 오전 9시, 명동성당(집전: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 기조강연: 강우일 주교) / 문의: 778-7543

제157회 한국교회사 연구 발표회

- 제1주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입과 전개 - 발표: 정수경(숙명여대 강사) / 회비 없음
- 제2주제: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종교 조각에 나타난 연극적 특성 - 발표: 장은영(이화여대) / 교재 제공
- 때, 곳: 10월25일(토), 한국교회사연구소(평화방송빌딩 4층)
- 문의: 756-1691(내선 1번) / 홈페이지: www.history.re.kr

가톨릭교리신학원 설립 50주년 기념일 행사

가톨릭교리신학원은 10월20일(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정진석 추기경을 모시고 경축행사를 갖습니다.

- 문의: 747-8501~5 가톨릭교리신학원

50주년 경축	집전: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기념미사 및 기념식	10월20일(월) 오전 10시30분, 혜화동성당
50주년 기념 오찬	10월20일(월) 낮 12시, 혜화동성당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 '가톨릭교리신학원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10월20일(월) 오후 2시, 가톨릭교리신학원
설립 50주년 기념 초대작가전	10월15일(수)~24일(금), 가톨릭화랑 문의: 360-9193

10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체험사례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0월20일(월)	불광동성당(지구 자체)	
10월21일(화)	신내동성당	명일동성당
10월22일(수)	중곡동성당	역삼동성당(지구 자체)
10월23일(목)	대방동성당	
10월24일(금)	목동성당	명동(가톨릭회관 3층)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0월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1939년, 용산
- 10월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70세) 1943년, 용산
- 10월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8세) 1994년, 용인

원목봉사자 교육 제3과정(구 원목봉사자 3단계 교육)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는 환자돌봄을 위한 봉사자 교육 제3과정(애니어그램, 생명윤리, 영적돌봄 등)을 실시합니다. / 문의: 727-2073(11월6일까지 접수)

- 때, 곳: 11월12일~12월3일 매주(수) 오전 10시~오후 4시(4주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정원 80명(30명 미만시 취소)
- 회비: 9만 원(환불 안 됨) / 입금 계좌: 우리은행 454-003267-13-341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알렌 쉰들러 박사 초청 강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는 알렌 쉰들러 박사를 초청해 자원봉사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합니다. / 문의: 727-2245(www.escvc.or.kr)

초청 강연	10월25일(토) 오전 10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카리타스자원봉사 지도자 및 관리자 양성소 오프닝 행사	10월22일(수) 오전 11시	가톨릭회관 4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35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 가능한 여교우 / 10월21일(화)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 안 됨) / 개별통보 후 면접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8-2 / 문의: 764-0221, 2

평화화랑: 박경애 수녀 작품전

평화화랑은 '박경애(올리비아, 의정부교구 금촌성당) 작품전'을 10월22일(수)~28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딸수도회(마리아니스트)	10. 26. 10시-16시	목동 본원(성소피정)	011-686-7134
마리아수도회	10. 26. 17시	문의 바람	010-2406-8547
마리아의 종 수녀회	10. 25. 17시-26. 16시	수원 본원(성소피정)	010-3065-8221
사랑의 씨든 수녀회	10. 24. 19시30분	씨든 피정의 집	011-9193-3005
살레시오 수도회	10. 25-26.(1박2일)	대림동 공동체	831-3068
성모 영보 수녀회	10. 26. 14시	과천 본원	011-9920-9423
성심 수녀회	10. 26. 13시30분-18시	원효로 청원소(미사 있음)	010-9562-3339
아씨시의 프린치스코 전교수녀회	10. 26. 14시	수원 본원	010-5313-0241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10. 26. 14시	다락방 공부방	011-9731-0283
원죄 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10. 26. 14시-18시	정릉 수련소	010-5247-8913
착한 목자수녀회·관상 수녀회	10. 26. 14시	춘천 석사동 수녀원	010-2871-8805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10. 25.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천주의성 요한 수도회	10. 25. 14시	광주 수도회 본원	010-7169-8427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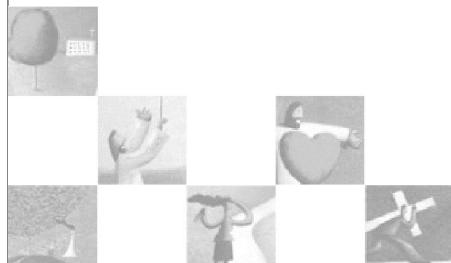
일상에서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 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책



상담의 지혜

박현민 지음 | 154×224 | 392면 | 15,000원

상담 심리학 박사이자 한국 상담심리학회 초대 학회장인 박현민 신부가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이 책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심리적 ·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지 고민하는 사목 상담자들로 하여금, 내담자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한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가톨릭 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제9회 가톨릭 그레고리오 성가의 밤

· 지휘: 조풍상(토마스 모어) / 문의: 010-2367-5806 최정조 단장



가톨릭 그레고리오 성가단에서 주최하는 제9회 그레고리오 성가 정기연주회 '가톨릭 그레고리오 성가의 밤'이 10월 21일(화) 오후 7시30분, 성

공회 대성당(덕수궁 옆 영국대사관 앞)에서 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는 그레고리오 성가들 중에서 1번 미사곡을 중심으로 남성의 부드럽고 정제된 소리로 다듬어진 그레고리오 성가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무료 입장).

종교 갈등이 빈번한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교 지침서로, 한국 종교 문화 속에서 실현해야 할
현대 그리스도교 선교 사명을 다룬 책

제1부 '복음 선교의 길'에서는 선교사이신 예수님이 선교를 살펴본 후, 성경과 교회 문헌을 통해서 참된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제2부 '문화 선교의 길'에서는 다종교 상황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민족 종교를 이해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를 살펴본다. 제3부 '사회 선교의 길'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선교를 진지하게 모색한다.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박일영 지음 | 154×224 | 324면 | 13,000원

하느님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 수녀가 전해 준 기도와 묵상

하느님 자비의 기도 모음집. 하느님의 자비가 세상 창조에서 우리의 성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이 작용해 있는지 일깨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실천으로 온전히 그분께 의탁해야 하느님의 자비로 해방, 치유, 변화의 은총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를 바탕으로 기도, 묵상, 찬미가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독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마음 깊이 기도하도록 친절하게 이끈다.



자비의 성모 수녀회 지음 | 여진주 옮김
120×170 | 440면 | 9,800원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가톨릭 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목동성당 쌍뚜스 성가대 정기 연주회

· 지휘: 서강문(요한) / 문의: 2643-2212, 011-721-9900



목동성당에서 교종미사
를 담당하고 있는 쌍뚜스
성가대의 정기연주회가
10월 21일(화) 오후 8시,
목동성당에서 열린다. 본

당의 사목 지향인 "주님과 함께(Cum Domino)"라는 주제로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음악을 연주한다. 1부에서는 대림과 성탄을 주제로, 2부에서는 수난과 부활을 주제로 연주한다.